

투데이 칼럼

북한의 고령화 문제

북한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모두 국가가 나서서 보살핀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북한 역시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고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7월 전국노병대회를 앞두고 625 참전 북한군 노병들이 평양에 집결했다. 북한 매체는 노병들을 일일이 챙기는 김 위원장을 집중 부각했다.

노병들은 대화에 이어 양덕은천 문화휴양지까지 찾았다. 마스크를 벗고 온천욕을 즐겼고, 각종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모습도 전파를 탔다. 노병들은 모두 김 위원장의 애민정신과 국가의 배려라고 했다.

2015년 준공된 평양 양로원은 대표적인 국가 복지기관이다. 각계각층의 노인들이 이곳에서 국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북한 노인들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실상과 많이 다르다. 양로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게 탈북민의 증언이다. 실제로 당국이 주는 혜택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돌아온다.

양로원은 생을 마감하려 가는 곳이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배급이 없는 상황에서 양로원 국가 지원은



정복규
논설위원

더 어렵다. 북한에서 노인들은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들과 함께 여권자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 대상이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선 일단 정권을 지키고 체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국가가 나서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한다든가 국가의 공공기금을 만드는 일은 어렵다.

국제 지원이나 해외동포 원조 기금 등 보충이 절실하다. 문제는 북한도 고령화가 무척 빠르다는 점이다. 이미 2004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203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초고령화 사회는 20%가 65세 이상이다. 북한 인구 2천5백만 명 가운데 20% 이상이면 약 5백만 명 정도다.

북한 당국도 2007년 '연로자보호법'을 만드는 등 고령인구 부양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로자보호법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국가가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 법이 종이해당 불과 같다. 우리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연로연금조차 지급받지 못한다. 노인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북한의 시정이다. 1990년대 배급이 중단된 이후로 장마당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일상을 좌우한다. 국가의 연로연금을 받아도 한 달에 북한 돈 700원이다. 소비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 북한에선 사망 한 개가 백 원 정도다.

연로연금 7백 원을 다 탕다고 해도 사망 7개 돈이다. 장마당에 나가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먹지 못하고 장사 밀전이 없어 불가능한 일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22년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명

이다. 여성 1명이 평생 자녀를 2명도 낳지 않는다. 북한이 2,500만 명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한다.

그러나 출산율은 북한 당국의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북한에서도 2010년 이후엔 뚜렷하게 삶의 질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됐다. 시정이나 주민들의 자립적인 경제활동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자식을 적게 낳아 잘 키우려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중산층이 등장하는 등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기화 된 대북 제재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부양자인 자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도 종종 있다. 전염병이나 경제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치명적이다. 북한 당국은 여성동맹이나 각종 사회단체가 노인들의 생활을 돌보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이 말한 "60세는 청춘, 90세가 환갑"이라는 말을 활용하며, 노인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강조한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생산 활동 역시 국가경제 기반이 탄탄할 때 가능하다. 북한은 국가의 은덕으로 왕혼기도 청춘이라고 선전한다. 과연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 나눠주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2일(현지시간) 최근 수복된 우크라이나의 이지울 마을에서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침수된 기숙사에서 대피하는 대학생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학생들이 허리케인 이언으로 침수된 학교 주변 기숙사에서 대피하고 있다.

사설

전북도 농업용 로봇 기술개발

전라북도가 최근 전북대와 함께 농업용 로봇 기술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대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는 농작업 무인화를 위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핵심기술 고도화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교육부의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1단계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올 9월에 국비 23억 원을 포함한 25억여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단계(2019~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농업 무인화를 위한 분야별 핵심 요소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활용 열과 거리 인식 기술을 통한 작물과 잡초 구별, 이랑·고랑 인식 개발과 함께 수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양팔 기계장치 설계·제작 등을 완료했다.

특히 특정 작물의 병충해 인식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달

기 92.1%, 토마토 91.53%, 파프리카 89.73% 정확도를 기록했다.

도내 기업체 간 연계를 통해 '자율 제초로봇 시스템 개발', '돼지 분사 내 환경 모니터링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 '작물 병충해 진단 기술을 활용한 재배기술 공유 플랫폼 개발' 등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지원 사업은 1단계에서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작업 대상 객체의 식별률을 높이고, 농작업 수행 시 장애물을 탐지하고 회피 경로를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질병과 건강진단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진화도 모색할 계획이다. 농작업 무인화 시대와 농업용 로봇개발 분야에서 전북이 선도 지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전북도는 농작업 무인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온 힘을 쏟기 바란다.

가정교회 일본선교사 추모예배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다 숨진 가정교회 일본 선교사에 대한 추모 예배가 최근 전주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월 23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가정교회는 전북 대교구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일본 선교사 합동 추모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사명을 받고 현해탄을 건너 전북에서 축복가정으로 살다가 성화한 선교사들을 추모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22명의 일본 선교사를 추모했다.

추모 예배는 이태노 가요교전북 대교구 일본 선교사 리더의 사회로 시작했다. 현화에 이어 교구장 추모인사, 장학금 수여, 홍순환 원로목사의 격려사, 그리고 나카하라 마키 선교사의 편지 낭독이 있었다.

이동하 교구장은 "낮설고 물설은 이곳에 찾아온 선교사들은 생을 먼저 마감하고 천상에 입적해서도 우리들을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루지 못한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천대석-모리야마 마유미 가정 자녀인 천영일 군, 천영진 군, 천지연 양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천영일 군은 어머니가 성화한 상황에서도 전교 1등의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앙생활도 모범적인 2세로 주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홍순환 원로목사는 이번 7회까지 추모예배 준비위원인 오케야 메구미, 다나카 히로코, 나카무라 이즈미 선교사 등과 함께 일본선교사 추모예배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재 회장은 "천일국은 아버지 나라 한국과 어머니 나라 일본이 하나가 되어서 만드는 나라이며 이를 위한 공로자가 바로 일본 선교사들이다"라고 말했다.

죽음은 누구나 숙명적인 일이다. 이날 추모예배는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의 영계로 가는 인생에서 누구나 사랑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